

퍼즐의 안쪽부터, 말의 바깥으로

곽지수 x 김시몬 CORPUS 리뷰

강정현

직소 퍼즐을 맞춰보던 경험을 떠올려 보자. 하나의 이미지가 수많은 조각으로 흐트러져 있다. 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하나의 이미지와 그것의 작은 부분을 번갈아 보며 조각의 위치를 정하면 된다. 하지만 전체 그림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퍼즐을 완성해야 할까?

곽지수와 김시몬의 작업은 완성될 최종 이미지가 없는 퍼즐과 같다. 확고한 도착점이 없기에 이들은 각 조각이 서로 맞물릴 수 있는 여지만을 더듬어 나갈 뿐이다. 그렇게 일단 손에 잡히는 한 지점에서 시작된 증식은 계속해서 다음을 불러오며, 어느 순간 작업을 바라보는 이 역시 그 기묘한 퍼즐 맞추기의 궤적 안으로 초대된다.

감지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명명할 단어에는 미처 도달하지 못하는 것 - 이는 우리가 술하게 마주하는 몸속 작용의 한 면모이다. 몸에서 말로 번역될 때 발생하는 맹점은 이들에게 있어 기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외려 그 답답함을, 설명할 수 없는 무력감을 순간적으로 뒤집어 이미지 전개의 여지로 삼는다. 이제 맹점은 그다음 것이 올 수 있는 빈 공간이다. 이름 없는 상태를 단일한 이미지로 성급하게 환원하지 않을 때, 비로소 목적지 없는 방랑이 시작된다.

방랑의 결과가 단순한 혼란에 그치지 않도록, 이들은 최소한의 틀을 설정한다. 곽지수의 조각에서는 형광 바벨의 수평선이, 김시몬의 작업에서는 화지의 외곽선이 그러하다. 그러나 그 내부를 구성하는 또 다른 선, 즉 전선과 케이블 타이, 드로잉 라인은 사뭇 다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틀 안에서 뒤엉킨 물리적인 구획은 끝없이 중첩되며 그 자체로 응집된 덩어리를 이룬다. 이는 경계가 반복될수록 감각의 구분은 오히려 흐려지는 순간과 맞물린다. 고통과 쾌, 스트레스와 해소는 자연언어 속에서는 상충하는 것이지만 감각의 차원에서는 대립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결국 두 작가가 감지한 몸의 작용은, 충돌하는 것들의 공존이라기보다는 애초에 그 구분 자체를 전제하지 않음에 가깝다. 그렇게 덩어리가 증식할수록 언어는 한 겹씩 벗겨진다. 마치 원래 그랬던 것처럼, 놀이하듯이.

정확한 지시와 지칭을 피한, 의미에서 도망친 그들의 덩어리는 어디를 향해 가는가. 그 궤적은 기꺼이 효율성을 내려놓고 에둘러 발화하는 먼 길이다. 우리를 감싼 지긋지긋한 몸의 작용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알기에 어찌할 수 없음에 흐름을 맡겨버린다.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농담을 던지고, 운에 맡기며, 정리하고 싶지도 않은 말을 매단다. 동시에 작은 유닛들은 구겨지고, 잘게 쪼개진 선은 꿈틀거리며 미세한 진동을 보여준다. 이 모든 것들은 곽지수와 김시몬이 조심스레 짚어 나가며 손으로 했을 고민이다.

본 전시가 이들의 퍼즐 맞추기의 완결은 아닐 것이라는 기대 섞인 짐작을 해본다. 전시장을 나오는 순간에도 여전히 그들의 작업은 다음 조각을 기다리는 상태로 남아 있었다. 유닛이 모여 덩어리가 될 때, 이들의 말뭉치가 정제될지 혹은 흩어질지는 알 수 없다. 그렇기에 흔쾌히 그 미완의 퍼즐 맞추기에 또다시 초대받고 싶다.